

인터넷(INTERNET)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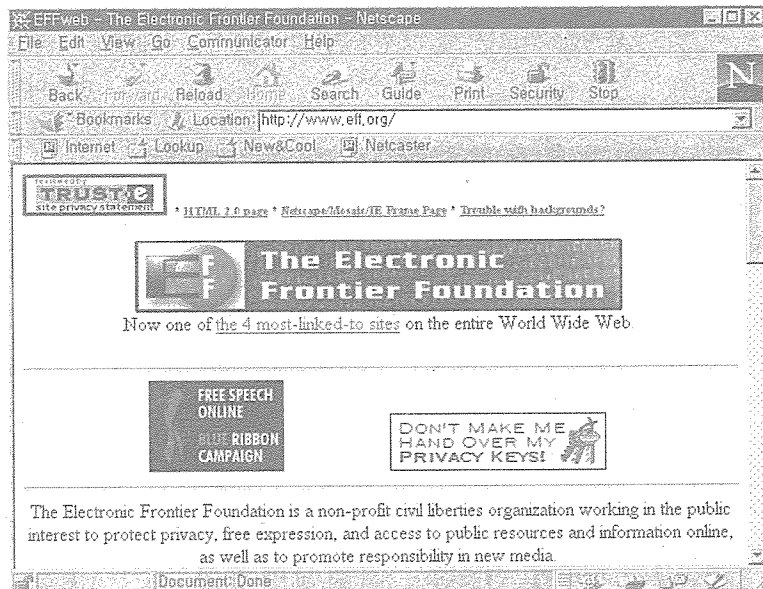
신용진/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 이사

다음 순서로 게재합니다

1. 인터넷(Internet)의 기초
2. PC 사용환경의 발전과 인터넷(Internet)
3. 윈도우 (Windows) 95에서 넷스케이프 (Netscape) 3.0 설치
4.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Netscape Navigator) 3.0의 기초 사용법
5.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활용
6. WWW HELPER 프로그램 (Plug-ins)
7. E-mail/FTP/인터넷 폰 (Internet Phone)
8. 인터넷 비즈니스 (Internet Business)
9. CGI, JAVA 와 정보 고속도로
10.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화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의 기본 개념부터 WWW의 접속 및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 보았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이를 가공하고 자신이 필요한 가치로 만들 것이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란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함께 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물도 전유물도 될 수 없는 만인의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극단적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원하는 몇몇의 사용자들과 기업에 의해 인터넷에서 범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법적으로 검열을 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모두를 위한 표현의 자유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개성이라 생각한다. 필자도 이런 견해를 지지한다. 정보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에 대한 판단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통해 사회적인 정보의 정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림1> 블루 리본 페이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1996년 2월 8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통신법은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미국 통신의 전반에 걸친 법률로 인터넷의 검열 조항을 담고 있었다. 물론 법자체는 국가의 이익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애매한 해석이 인터넷의 자유스러운 표현과 공개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

인터넷 WWW에 과란 리본의 물결이 퍼져 나갔다. 인터넷 검열 조항을 반대하는 블루 리본 캠페인(Blue Ribbon Campaign)을 시작한 것이다. 이 시위는 조용하게 일어났고 차분히 퍼져 나갔지만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네티즌의 의지를 강력하게 모아 나갔다. 1996년 6월 12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 품위 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연방법원은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블루 리본 사건은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지키려는 전세계 네티즌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뜻이 모여 나타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의 표현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 자유를 주장하는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반사회적이며 비도덕적인 정보가 인터넷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할 것이다. 국내에도

PC통신을 중심으로 이런 각성의 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올바른 통신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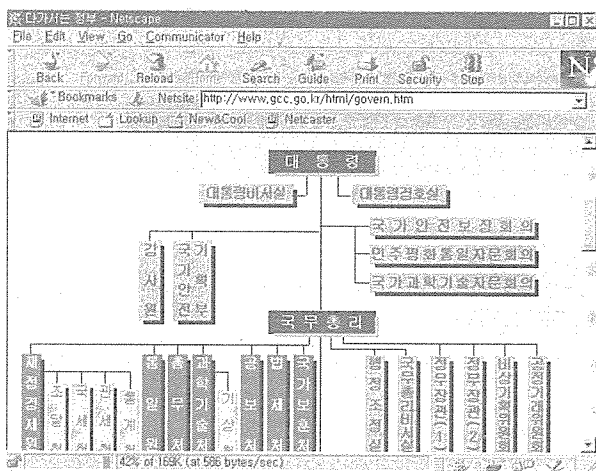
정보의 공유화

정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특정 계층과 단체를 위한 정보는 인터넷의 기본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정보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상업적인 정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윤을 만드는 인터넷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도 인터넷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정보의 공유를 말하려는 것은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열려진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는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성공과 실패라는 말로 대신될 수 있다.

인터넷의 출발 그 자체가 누구 한 사람에게 의한 것이거나 한 단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네티즌과 사용자들에 의한 출발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터넷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보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정부기관도 인터넷에 웹사이트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각 대학의 도서관은 웹에 전자도서관으로 우리들에게 도서정보와 원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각 기업은 회사의 경영정책과 최신 경영정보를 주주에게 웹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고 유용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인터넷이 꿈꾸는 유토피아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아마도 인터넷의 자유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생각하고 인터넷이라는 장을 유용히 활용한다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림2〉 행정부 웹페이지



그동안 부족한 내용을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